

지역 매 아리

부안소방서-유관기관,

곰소항 식당 화재예방 교육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3일 전기 안전공사를 비롯하여 가스안전공사, 진서면 3개 단체가 유관기관과 함께 곰소항 주변 30여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곰소항 주변 젓갈 판매장, 횃집 등 30여 상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6일에 발생한 화재발생 사례와 관련하여 화재예방교육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유관기관은 전기 배선상태 확인 및 조리용 취사시설의 가스안전점검을 병행 하여 화재 위험이 되는 요인을 꼼꼼히 살펴봤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 정보화마을, 특산물 등 홍보

고창군 정보화마을(하전·북분자·고인돌·반암마을)이 '제15회 고창정보발족제'에서 '고창군 정보화마을'을 홍보관을 운영하며 마을소개와 함께 특산물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고창군 정보화마을은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오는 13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고창정보발족제'에서 녹두, 현미누룽지, 바지락젓갈, 천일염, 수제비누, 작두콩차 등 4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비누꽃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통해 정보리발을 찾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즐거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정보화마을에서 진행하는 갯벌체험, 북분자따기체험 등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생태자원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농촌체험을 소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청소년 대상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교육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자랑스런 고창의 인물인 녹두장군 전봉준의 위국단신을 선양하기 위해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탐방교육은 지난 2월 참가 신청을 받아 가평초, 공음초, 해리초, 신림중, 대성중, 해리고, 강호항공교, 고창북교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탐방학교는 4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4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학유적지 탐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정읍시, 소규모 사업자 등 해당 시민들 신청 가능

정읍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3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다.

또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임주인)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제의 사업장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임·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홍보활동도 강화해 현수막과 배너·포스터·리플렛 제작 배부, 시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 5인 이상 사업체는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복지+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부안군, 오는 31일 까지

부안군이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감소하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공어초 투입, 바다복합 조성, 주꾸미 산란 장 서식지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부안군 대표 수산물 해삼 등 총 6억 6400만 원의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위해 5월 전국 일제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무분별한 남획 및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며, 특히 주꾸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주꾸미 금어기가 금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신설·적용됨에 따라 주꾸미의 금어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신경철 수산과장은 무(면허·허가·신고)조업,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금지구역위반, 포획금지 어종, 불법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며 사전 홍보와 계도에도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 확립 및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 동식물의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추가 신청

부안군, 오는 18일까지

부안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려는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추가 신청·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직불금 조기 지급을 위해 신청기한(2월 1일~4월 20일)이 지난해보다 10일 당겨진 만큼 개인사정 등으로 미처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 누락 농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 지급 단가는 진흥지역은 ha당 107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밭 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지역 63만 7000원, 진흥지역 밖은 47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만 2000원, 4만 7000원이 인상돼 논 이모작 직불금과 동일하게 평균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어린이 눈높이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립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미술관은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난월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작품하고 놀자와 ▲친구랑 작가 여행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10월(7, 8월 제외)까지 운영되는데, 운영 기간 중 매일 둘째와 넷째 주 토요일(10:30) 진행 된다. ‘작품하고 놀자’는 미술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를 표현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6-7세 아동이 대상(회 당 20명 내외)이다.

‘친구랑 작가 여행’은 동·서양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3학년이 대상(회 당 20명 내외)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참여하고 싶은 월 1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539-6420/6418~9)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옛 사진에 투영된 정읍 스토리’ 한눈에

정읍시립박물관서 전시회

오는 7월 30일까지 수집

12월 4일부터 기획전시실서

정읍시립박물관은 정읍의 옛 모습을 통해 정읍의 현재를 조명하는 전시회를 준비한다. 이와 관련 시립박물관은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수집 중에 있다.

박물관은 “사진 한 장이 정읍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됨은 물론 과거 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정읍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장롱 속 깊숙이 보관돼 사진들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해 정읍의 변천상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수집 중인 사진은 정읍 시민의 삶과,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광이 소개되어 있는 2000년 대 이전의 것으로, 필름과 인화사진, 디지털 사진 등을 포함한다.

박물관은 “시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정읍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문화예술·사회단



정읍시립박물관은 오는 7월 30일까지 정읍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수집한다.

체, 교육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거쳐 ‘옛 사진에 투영된 정읍 스토리’란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 전시하며, 도록에 게재한다. 또 전시 후 반환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되돌려 준다.

전시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28일까지 정읍시립박

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진다.

전시회에 사진을 출품하고 싶은 시민들은 정읍시 또는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열람한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정읍시립박물관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 우편, 메일 전송 모두 가능하다. 접수는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됐고, 7월 30일 마감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Includes tex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러운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Product sets include 750ml 2ea, 375ml 5ea, and 500ml 2ea options.